

냉이에 발생하는 진균성 병해

신현동*, 김원배¹⁾

고려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농생물학과, ¹⁾고령지농업시험장 원예과

냉이[*Capsella bursa-pastoris* (L.) Medicus]는 십자화과에 속하는 야생자원식물로 이른 봄에 채취하여 이용하는 대표적인 봄철채소이다. 최근 냉이의 수요증가에 따라 자연산 냉이가 출하되기 전에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여 이용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냉이의 병해는 보고된 바 없으므로, 자연상태에서 냉이에 발생하는 병해를 조사하여 재배화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모두 4가지 병해가 채집되었는데, 모두 진균에 의한 병해였으며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병해는 관찰되지 않았다. 흰녹가루병은 주로 4월 중순부터 발생하였으며 병원균은 *Albugo caridida* (Pers.) Kuntze로 동정되었다. 노균병은 주로 4월 중순부터 발생하였으며 병원균은 *Peronospora parasitica*(Pers.:Fr.) Fr.로 동정되었다. 흰무늬병은 드물게 발생하였는데 병원균은 *Pseudocercospora capsellae* (Ellis & Everh.) Deighton로 동정되었다. 그리고 흰가루병은 5월 초순부터 발생하였는데 병원균은 *Erysiphe cichoracearum* DC로 동정되었다.

이중 흰녹가루병과 노균병의 발생이 많았으면, 흰무늬병과 흰가루병은 드물게 발생하였다. 병리학적 관점으로 볼 때 흰녹가루병과 노균병은 재배환경에서 재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비닐하우스 재배에서는 이들 두가지 병해의 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